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3)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3 2) 96사단 주둔지 (19)원당봉과 진드르비행장
軍비행장 건설 위해 오름 마구 파헤쳐

입력 : 2007. 11.01. 00:00:00

분화구 안쪽·오름 능선서 갱도진지 찾아내
도민 강제동원 현장... 역사·사회상 규명 필요



▲원당봉 북쪽 능선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제주섬을 전쟁기지화 하면서 일제가 심혈을 기울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 비행장 건설이다. 1930년대 중국대륙 공격을 위한 발진기지로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을 만들었다면,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뒤에는 일본토사수를 위한 연합군과의 전쟁수행을 위해 비행장을 조성한다.

그 현장 중의 하나가 바로 제주동비행장(일명 진드르비행장)이다. 제주동비행장은 일본 육군이 만든 군사비행장이다. 현재 제주시 삼양검문소에서 조천읍 신촌사거리

리에 이르는 평탄지형이 비행장부지다. 원래 비행장 활주로 용도로 다져졌던 것이 지금은 왕복 4차선 아스팔트도로로 변했다.

비행장 건설은 또 하나의 고된 노역의 신호탄이었다. 당시 국민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주도민들이 마을별로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맨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야 오죽했을까.

주민들에 따르면 진드르비행장을 만들면서 원당봉의 흙과 송이층을 파서 울퉁불퉁한 대지를 평탄화시켰다. 비행장 건설로 오름 기슭은 마구 파헤쳐지는 수난을 당한다. 그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

원당봉은 고려시대 건립된 원당사지5층석탑(국가보물 제1187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아픈 역사적 사실은 거의 외면돼 왔다.

오름 정상부에 서면 북쪽으로 시원스레 트인 바다와 서쪽으로는 별도봉 사라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조천읍 서우봉이 잡히는 곳이다. 남쪽으로는 당시 일본군 96사단 293연대주둔지인 명도암 일대가 지척이다.



▲오름 분화구 안쪽에 있는 갱도 입구.

제기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갱도는 규모는 작지만 벽면에 갱목흔적 등이 뚜렷이 남아있어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름 정상부에서는 입구를 잡석으로 메워버린 갱도가 확인된다. 이 지점에서는 바로 진드르비행장의 너른 별판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해안가 자살특공정기지가 설치됐던 조천읍 서우봉도 선명히 볼 수 있다.

원당봉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갱도는 북동쪽의 능선에서 찾을 수 있다. 원당사지 바로 뒤편이다. 이 갱도는 길이가 15m가 채 안되는 소규모로 바위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입구는 2곳으로 바위로 약간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처럼 원당봉은 일본군이 구축한 갱도진지와 진드르비행장과 연관성 면에서도 주목되는 곳이다. 일본군 군사시설 뿐 아니라 당시 도민들의 강제동원된 역사현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성 및 사회상 규명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 인터뷰/김자봉씨]"당시 생각하면 머리끝이 오싹"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당시는 하루하루 떨면서 숨쉬고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워낙 엄해놓으니까..."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김자봉씨(1930년 생·제주시 일도2동)는 비행장 공사다 갱도구축이다 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이리저리 중노동에 내몰리던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탐사팀은 원당봉 분화구 안쪽과 정상부 및 북쪽 능선에서 숨겨진 일본군 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화구 안쪽의 갱도는 입구가 무너진 곳 등 5곳 정도 된다. 그 구조로 볼 때 내부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남서쪽 사면에서 찾아낸 갱도는 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갱도는 가끔 기도처로 이용되는 듯 조그만 불상이 바닥에 놓여져 있어 눈길을 끈다. 또



▲갱도 내부에 모셔져 있는 조그만 불상.

자택 근처에서 탐사팀을 만난 김씨는 한동리가 고향으로 진드르 비행장(현 제주시 삼양~신촌사거리 아스팔트 도로)과 별도봉 갱도진지 구축,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 조성공사에 동원되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던 당시를 힘들게 떠올렸다.



김씨는 1945년 2월 무렵 한동리에서 진드르비행장 활주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됐다. 삽과 곡괭이로 도로고(궤도차)에 흙을 담아서 50~1백m 정도 밀고나가 버리는게 일과. 지금은 평평하지만 당시 진드르는 울퉁불퉁 해서 평탄작업과 함께 원당봉의 송이들을 파내 이곳저곳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했다.

"현재 삼양초등학교 동쪽 냇가 곁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진드르비행장 닦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1개에 60명 정도 수용한 걸로 짐작된다는 김씨는 주변이 천막으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원당봉 동쪽에 주둔해 있었다.

이어 김씨가 간 곳은 제주시 별도봉. 현재의 별도봉 남쪽 산책로에 나 있는 10곳의 갱도가 도민들이 강제 동원됐던 현장이다. 산책로는 당시 갱도를 파면서 송이를 버리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다.

김씨는 가끔 별도봉 산책로를 걸을 때면 그 당시 생각에 머리끝이 오싹오싹 하다고 말할 정도다. 교대도 없이 하루종일 일만 한데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한 달 정도 있다가 도망갔다. 당시 배고프니까 미숫가루 15일치를 자루에 담아서 등짐지고 현장에 가야만 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중요한 역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는 분통을 터뜨렸다.

"별도봉은 왜정시대에 도민들을 총동원해서 파놓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시민들에게 알려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별도봉이나 사라봉에 당시 갱도들이 그대로 있는 만큼 조금만 정비하면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씨는 또 "당시 한동리 공회당에서 70~80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했었다"며 "나이는 40대 이상으로 두어달쯤 있다가 이동했다"고 고향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둔지봉 북쪽 사면에도 한동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서 갱도를 많이 팠으나 지금은 거의 무너져버렸고, 송당일대에도 1개사단 병력이 주둔, 구경갔던 적이 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